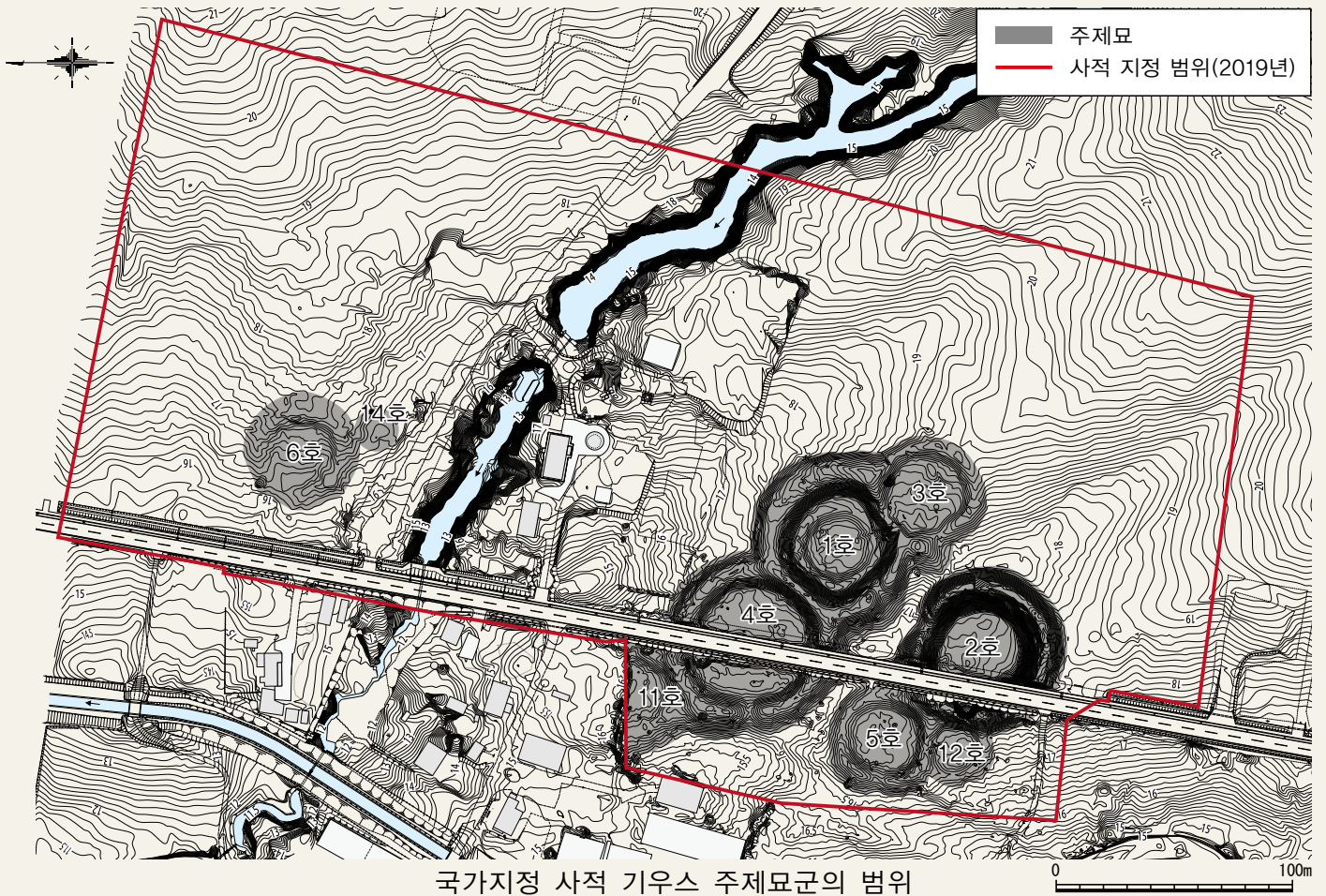


국가지정 사적
기우스 주제묘군



기우스 주제묘군이란



국가지정 사적 기우스 주제묘군의 범위

주제묘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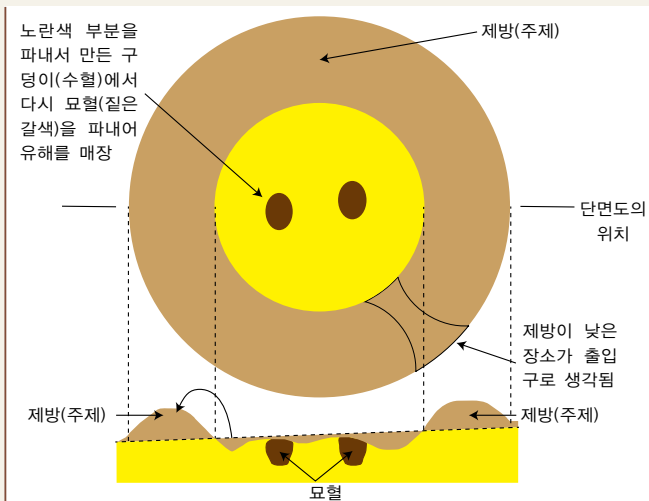
조몬시대가 끝나갈 무렵 (조몬시대 후기 후엽, 약 3200년 전) 홋카이도에서는 독특한 집단묘가 조성되었습니다. 이는 바닥에 원형의 큰 구덩이를 파내고 (수혈), 파낸 흙으로 수혈 주변에 제방을 쌓은 (주제) 후 수혈 안 또는 주제 위에 1기에서 수십 기에 이르는 묘혈을 만든 것으로 '주제묘' 라 불립니다.

주제묘의 일부는 도토와 아시베쓰시에 있으며, 그 외의 대부분은 에니와시, 지토세시, 도마코마이시의 이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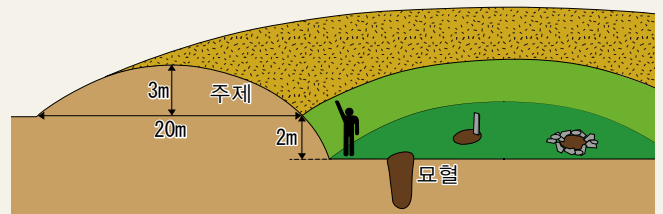
카리 저지대 남부에 집중적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주제묘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약 10~30m이나, 기우스 주제묘군은 70m가 넘는 대규모 주제묘가 군집해 있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또한, 기우스 주제묘군은 현재의 지표면에서 그 형태를 볼 수 있는 귀중한 가치를 인정받아 1979년에 국가지정 사적으로 지정되었으며 2019년에는 사적의 범위가 4.9ha에서 10.9ha로 확대되었습니다.



2호 주제묘의 주제 단면 (196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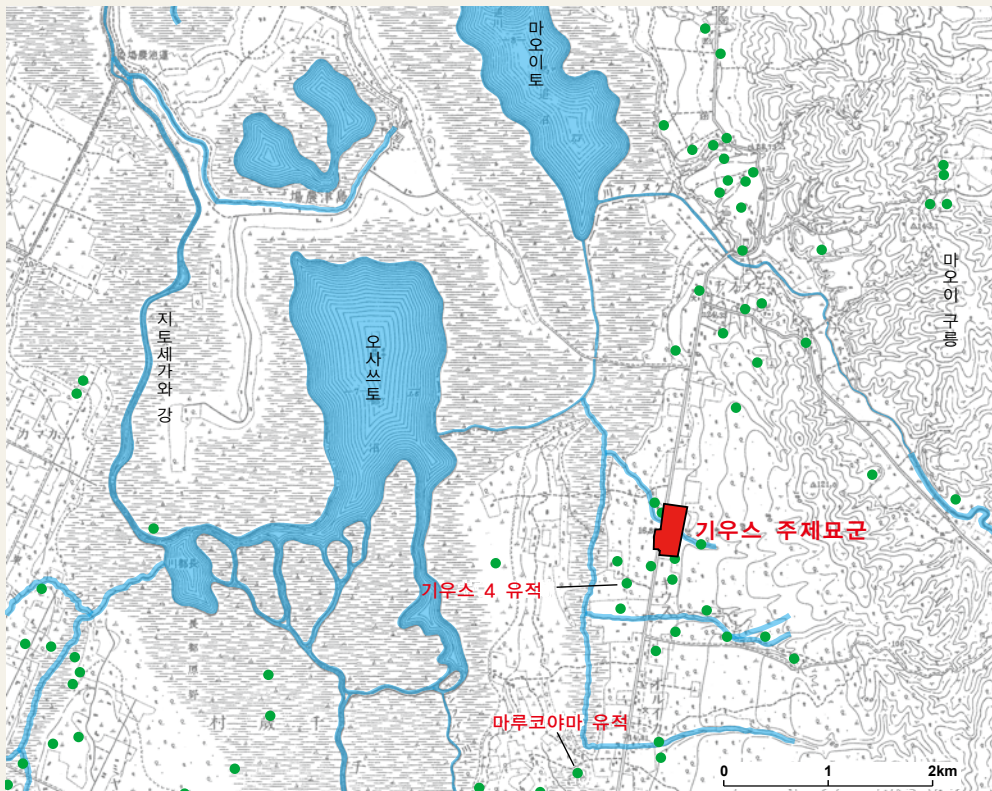


주제묘의 구조

아이누어 지명, 기우스

아이누어 지명은 해당 토지의 특징을 담아 붙여졌습니다. 홋카이도에는 지금도 아이누어의 발음을 따서 붙여진 지명이 다수 남아 있습니다. 기우스란, 아이누어로 '기, 우시' (역새, 군생하는 곳) 라는 뜻에서 유래했다고 여겨집니다.

당시에는 눈앞에 호수와 늪, 습지 주변에 역새가 펼쳐져 있는 풍경이었을 것입니다.



다이쇼시대의 기우스 주제묘군 주변 지도(●는 유적을 나타내는 표시)

기우스 주변의 지형과 유적

기우스 주제묘군은 이시카리 저지대의 남동부에 있는 마오이 구릉 기슭의 들판, 해발 15~21m의 완사면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대지의 바로 앞에는 광활한 습지대가 펼쳐져 있었으며 오사쓰토(오사쓰 늪)와 마오이토(우마오이 늪)가 넓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간척되어 호수와 늪, 습지의 대부분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구릉 기슭의 들판 주변에는 구석기시대 사람들이 생활을 시작한 흔적(유적)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주제묘는 고속도로 지토세히가시 IC 부근에 있는 기우스4 유적과 남서쪽으로 2.4km 떨어진 마루코야마 유적에서도 발견되었으며 현재 발굴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제묘 연구의 현재

주제묘는 예부터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여기서는 지금도 연구가 진행 중인 주제묘의 시작에 관한 학설을 소개합니다.

주제묘는 기타토호쿠와 홋카이도에서 조몬시대 후기 초엽에 조성된 환상열석에서 유래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환상열석이 자갈을 원형으로 배치한 거대한 기념물이며 묘혈이나 제사 유물을 동반한다는 점이 주제묘와 매우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두 곳이 조영된 시기의 연속성이나 중첩된 분포지역이 명확하지 않고 유적의 입지 경향도 다르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계보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 이외에도 수혈 주거를 모델로 삼았다는 설, 군집묘의 영향을 받아 발생했다는 설, 한랭해진 기후로 인해 인구 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주변 지역민들이나 집락 내 관계(단결)를 강화하기 위한 공동 작업으로서 주제묘를 조성하기 시작했다는 설 등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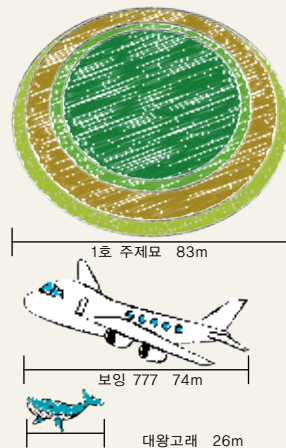
이후 조몬 만기에 접어들면서 주제묘는 돌연 조성되지 않게 됩니다. 종식된 이유는 무엇인지, 조영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인지, 후기 후엽의 홋카이도라는 제한된 기간과 지역에서 조성된 주제묘에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수수께끼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우스 주제묘군의 놀라운 크기!

기우스 주제묘군 중 1호 주제묘는 주제의 최대 지름이 약 83m에 이르며 지표면에서 볼 수 있는 조몬시대의 무덤 중에서 최대 크기를 자랑합니다.

대왕고래의 경우 총 길이 26m, 세계 최대 규모의 여객기 보잉 777은 총 길이가 74m이므로 이와 비교해 본다면 1호 주제묘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높이를 자랑하는 2호 주제묘는 수혈 바닥면에서 주제 위까지 약 5m에 이릅니다. 2호 주제묘를 조성하기 위해 약 3,000㎡의 흙을 옮겼을 것이라고 계산됩니다. 조몬시대의 또한, 최대 높이를 자랑하는. 조몬시대의 도구를 사용하여 흙을 파내고 이를 옮겨 쌓아 올린 흙의 양을 1인당 하루 1㎡라고 가정한다면, 25명이 120일간 작업한 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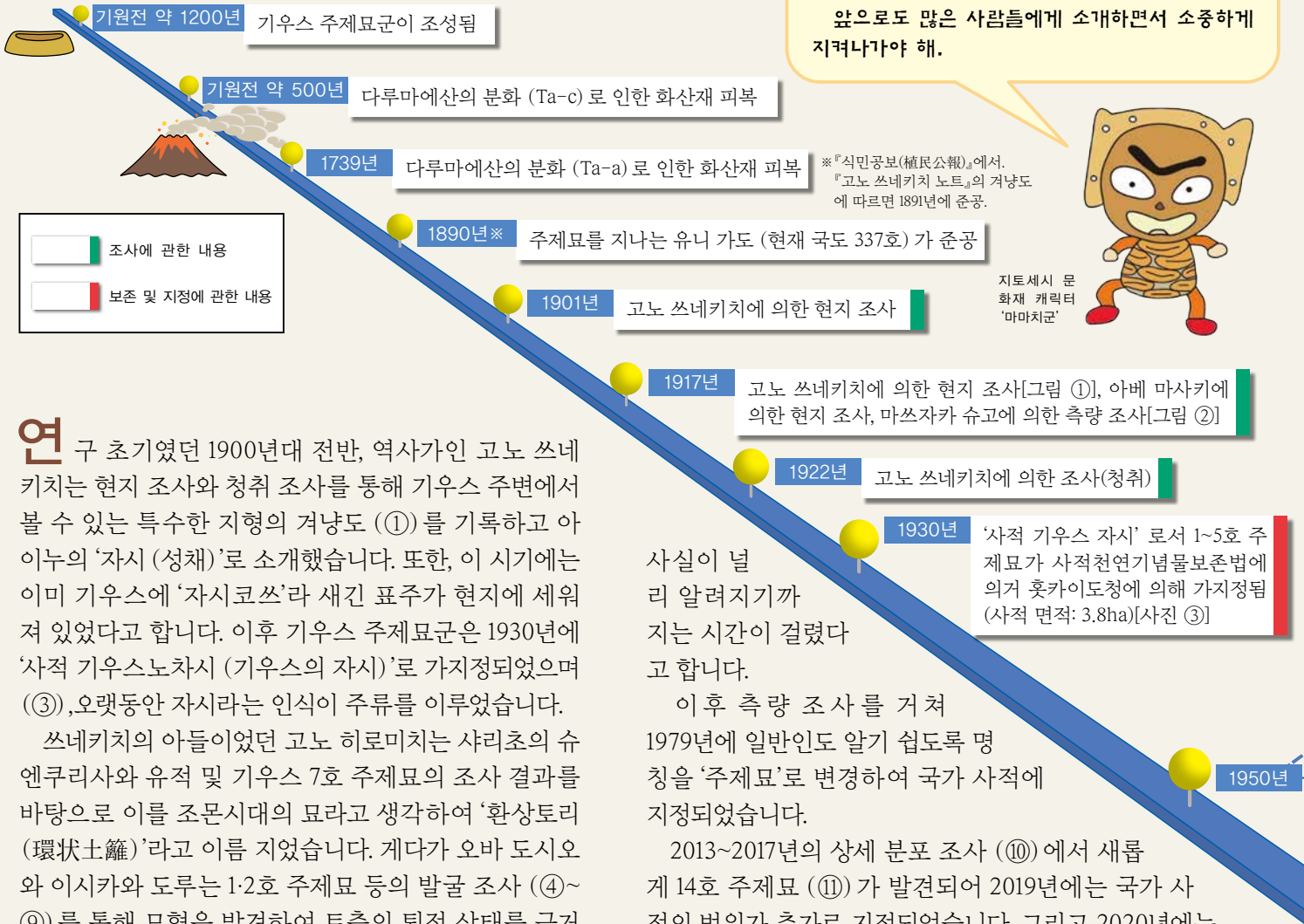
지금까지의 변천사

고노 쓰네키치 씨를 비롯해 많은 연구자들의 호소에 힘입어 이후 거듭되는 사적 지정 및 보호로 이어지면서 지역 주민들도 오랜 시간 소중히 여겨 왔어.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소중하게 지켜나가야 해.



지토세시 문화재 캐릭터 '마마치군'



연 구 초기였던 1900년대 전반, 역사가인 고노 쓰네키치는 현지 조사와 청취 조사를 통해 기우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특수한 지형의 겨냥도 (①) 를 기록하고 아이누의 '자시 (성채)'로 소개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이미 기우스에 '자시코쓰'라 새긴 표주가 현지에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기우스 주제묘군은 1930년에 '사적 기우스노차시 (기우스의 자시)'로 가지정되었으며 (③), 오랫동안 자시라는 인식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쓰네키치의 아들이었던 고노 히로미치는 샤희초의 슈엔쿠리사와 유적 및 기우스 7호 주제묘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조몬시대의 묘라고 생각하여 '환상토리 (環状土籬)'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게다가 오바 도시오와 이시카와 도루는 1·2호 주제묘 등의 발굴 조사 (④~⑨)를 통해 묘혈을 발견하여 토층의 퇴적 상태를 근거로 조몬시대의 집단묘라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컸던 주제묘의 크기 때문에 조몬시대의 유적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후 측량 조사를 거쳐 1979년에 일반인도 알기 쉽도록 명칭을 '주제묘'로 변경하여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13~2017년의 상세 분포 조사 (⑩)에서 새롭게 14호 주제묘 (⑪)가 발견되어 2019년에는 국가 사적의 범위가 추가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훗카이도·기타토호쿠의 조몬 유적군'의 구성자산 중 하나로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후보에 추천되었습니다.



⑤ 1호 주제묘 조사 모습 (1964)



⑥ 1호 주제묘 내 묘혈에서 발견된 돌기둥 (1964)



⑦ 4호 주제묘 외연부의 묘혈에 부장되어 있던 석봉 (19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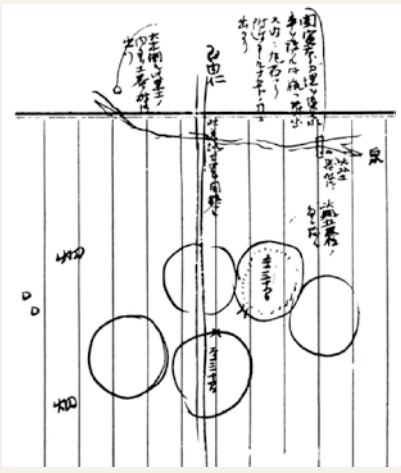
⑧ 2호 주제묘 조사 모습 (19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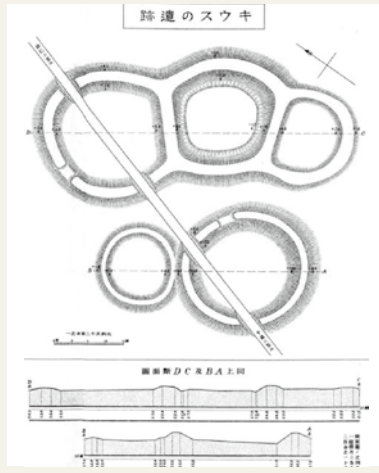
⑨ 2호 주제묘 내 묘혈 주변 (1965)



⑩ 사적 주변의 분포 조사 모습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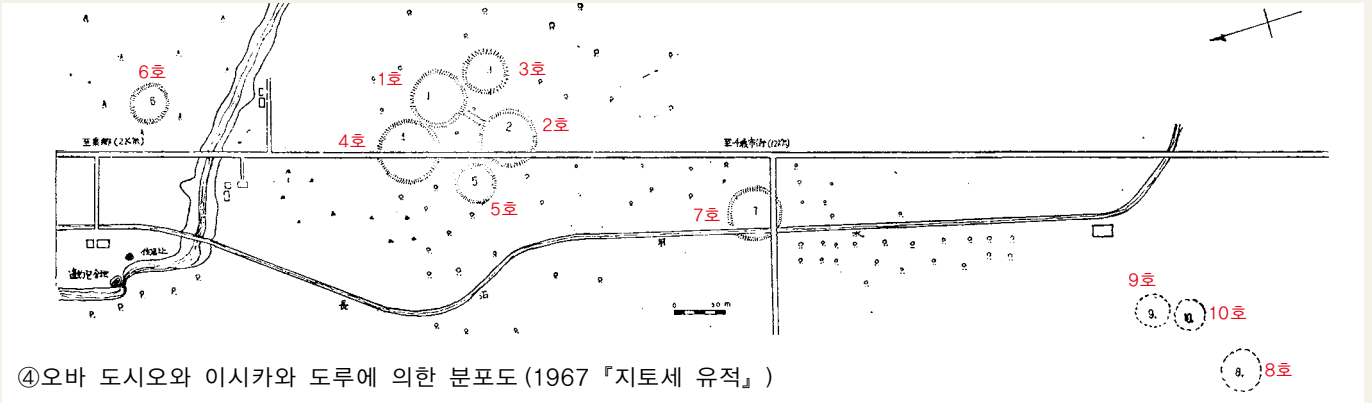
①고노 쓰네키치에 의한 겨냥도(우다가와 교주 (校注) 1981 『고노 쓰네키치 노트』에서)



②마쓰자카 슈고에 의한 측량도 (1918 『홋카이도사 부록 지도』에서)



③가지정 당시 세워졌던 간판 (1930년 ~1934년 촬영)



④오바 도시오와 이시카와 도루에 의한 분포도 (1967 『지토세 유적』)

아이누의 자시(성채)로 보는 학설

조몬의 집단묘로 보는 학설

7~10 호 · 13 호 주제묘에 대하여

고노 히로미치에 의한 7호 주제묘 조사(돌기 등이 있는 1기의 벵갈라가 뿌려진 묘혈 확인)

사적에 포함되지 않은 주제묘의 번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7호는 현재 위 그림과 같이 사적에서 300m 남서쪽으로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8·9·10호는 발견 당시부터 평평하게 깎아져 있던 주제묘로 그 후 위치를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적에서 약 3km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13호는 오인한 것으로 밝혀져 현재 오루이카 1 유적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1964년 오바 도시오와 이시카와 도루에 의한 1호 주제묘 조사 (5 기의 묘혈 확인) [사진 ⑤·⑥], 6~10호 주제묘 인식 및 그림 [그림 ④]

1965년 오바 도시오와 이시카와 도루에 의한 2호 주제 묘 조사(1기의 묘혈 확인, 주제 단면(전향)을 기록) [사진 ⑧·⑨], 4호 주제묘 외연부에서 묘혈을 발견 및 조사(석봉 출토) [사진 ⑦]

1968년 오바 등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토세 기우스 환상토리군(環状土籬群)'으로 1~6호 주제묘가 홋카이도 문화재에 지정됨(사적 면적: 41,615.05㎡)

1978년 지토세시 교육위원회와 나라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한 공동 측량 조사(11호·12호 주제묘 발견)

1979년 기우스 주제묘군으로 1~6·11·12호 주제묘의 범위가 국가 사적에 지정됨(사적 면적: 49,441.00㎡)

2012년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기재된 '홋카이도·기타토호쿠를 중심으로 한 조몬 유적군'에 구성자산 중 하나로 등록됨

2013년 ~ 2017년 사적 주변의 상세 분포 조사(14호 주제묘 발견) [사진 ⑩·⑪] 및 지형 측량 조사



⑩ 땅속에 파묻혀 있던 14호 주제묘 (2017)

14호 주제묘를 포함한 범위가 국가 사적에 추가 지정됨(사적 면적: 108,772.06㎡)

2019년

'홋카이도·기타토호쿠의 조몬 유적군' 중 하나로 세계문화유산 등록추천서를 국가(문화청)가 유네스코에 제출함

2020년

자세히 알아보는 기우스 주제묘군

1호 주제묘

바깥지름이 기우스 주제묘군 중에서 최대를 자랑합니다. 양옆에는 3·4호가 모습을 유지한 채 인접해 있습니다. 안쪽 구덩이는 중심이 솟아 있습니다.



1호 주제묘의 단면도

3호 주제묘

주제는 낮은 형태를 띠지만 중심 구덩이는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6·14호 주제묘

6호는 주제가 낮으며 형태가 조금 불분명합니다. 14호는 과묵한 상태여서 형태를 알 수 없었으나 최근 분포 조사를 통해 발견되었습니다. 현재는 다시 메워진 상태입니다.

두 곳 모두 사유지에 위치하기 때문에 견학은 불가능합니다.



4호 주제묘

안지름이 기우스 주제묘 중에서 최대를 자랑하며 매우 넓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조성된 순서

인접한 주제묘는 서로 주제의 일부를 공유하거나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토사의 퇴적 상황을 바탕으로 조성된 순서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남쪽 그룹은 12호→5호→2호 순, 중앙 그룹은 1호를 끼고 11호→4호→1호, 3호→1호 순, 북쪽 그룹은 14호→6호 순. 어느 쪽이든 현대에 가까워질수록 주제묘의 규모가 커져가는 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 재 기우스 주제묘군에서 9기의 주제묘가 확인되었으며 사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주제묘에서는 만들어진 시기를 나타내는 토기와 석기, 토우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또한, 묘혈에서는 석봉과 묘표로서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돌기둥도 발견되었습니다.

제방 형태로 쌓아 올린 주제에서는 일부 낮아진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파란색 화살표 부분). 제방이 끊어져 있는 이 부분은 수혈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출입구로써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주제묘의 크기(미터 단위)

| 주제번호 | 바깥지름 | 안지름 | 주제의 높이* | 주제의 폭 |
|--------|------|-----|---------|-------|
| 1호주제묘 | 83 | 36 | 2.8 | 23.5 |
| 2호주제묘 | 73 | 30 | 4.7 | 21.5 |
| 3호주제묘 | 51 | 27 | 0.8 | 12.0 |
| 4호주제묘 | 79 | 43 | 1.5 | 18.5 |
| 5호주제묘 | 51 | 24 | 0.8 | 13.5 |
| 6호주제묘 | 52 | 22 | 0.6 | 15.0 |
| 11호주제묘 | 53 | 23 | 0.6 | 15.0 |
| 12호주제묘 | 33 | 16 | 0.4 | 8.5 |
| 14호주제묘 | 19 | 11 | 0.6 | 4.3 |

*주제의 높이는 다른 주제와 중복되지 않는 장소에서의 독마루와 구덩이(수혈) 하단 사이의 가장 큰 고저차

여기에는 주제묘의 주요 볼거리들이 적혀 있으니 조문시대를 상상하면서 실제로 직접 걸어보며 확인해 보세요. 1·2호에서는 발굴 구역의 범위와 발견된 묘혈의 위치를 복원해서 나타냈어요.



높게 쌓인 흙의 수수께끼

1·3호가 접하는 부근에는 높게 쌓인 흙이 수수께끼처럼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흙은 1호 북쪽 주제의 바깥 둘레에서 연장선상에 위치한다는 점에서(붉은 점선) 본래 1호의 주제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호 주제묘

주제의 높이는 기우스 주제묘군 중에서도 최고를 자랑합니다. 안쪽에서 주제를 바라보면 그 높이에 보는 이들이 압도될 정도입니다.



2호 주제묘의 단면도

| | |
|--------|-----|
| 견학로 | --- |
| 사적 범위 | — |
| 견학 범위 | — |
| 당시 출입구 | ↔ |

주제묘가 되기까지

2013 ~ 2017년에 실시된 상세 지형 측량을 통해 주제묘군의 서쪽에 접하며, 남북으로 뻗은 2개 열의 평행한 낮은 성토와 여기에 끼어 있는 움푹 패인 땅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형태와 4·5·12호의 출입구가 이곳 움푹 패인 땅에 면해 있다는 점에서 이 구덩이는 인위적인 '도적(道跡: 과거 길이었던 흔적)' 이었다고 추정됩니다. 500m 남서쪽에 떨어져 있는 기우스 4 유적에서도 사적 기우스 주제묘군 방면으로 뻗은

동일한 도적이 발견되어 이 두 길이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1·3호의 출입구가 같은 방향이며 1·2호의 출입구가 서로 마주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사이에 끼어 있는 동서 방향의 얇은 골짜기 지형 또한 통로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위에 표시된 남북쪽에 있는 '도적' 과 합류 및 연결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우스 주제묘군의 출토 유물

사진 속 출토 유물은 지토세시 매장문화재센터에서 전시 중입니다.



1호 주제묘에서 출토된 토기



2호 주제묘에서 출토된 돌그릇



1·2호 주제묘에서 출토된 토기와 석기, 토우



4호 주제묘 외연부의 묘혈에서 출토된 석봉 (시 지정문화재)

기우스 주제묘로 오시는 길

- 소재지 홋카이도시 지토세시 주오 2777 외
 - ※JR 치토세역에서 10km, 신치토세 공항에서 12km
 - ※도토 자동차도를 타고 지토세히가시 IC에서 국도 337호로 빠져나와 북쪽(나가누마 방면)으로 진행 후 곧장 도로 양쪽으로 숲이 보이면 목적지 부근입니다.
 -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은 없습니다.

매장문화재센터 전시실

- 소재지 우)066-0001 홋카이도 지토세시 오사쓰 42-1
전화 0123-24-4210
 - ※JR치토세역에서 8km, JR오사쓰역에서 5km, 기우스 주제묘군에서 7km
 -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은 없습니다
- 견학시간 9시에서 17시까지
- 휴관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연말연시(12/29~1/3)
※매월 둘째 주 일요일은 개관
- 입장료 무료



트위터 공식 계정



매장문화재센터 홈페이지



표지 촬영: 요시다 유리히로
지토세시 매장문화재센터 문화재보급개발사업 홍보자료
2020년 9월 30일 발행